

<宗 訓>

忠孝 · 德禮 · 勤謹 · 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자란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淸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主幹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 720-6370~1 FAX : 720-9215

제23대 중앙종친회장에 韓甲洙 전 농림부장관

2월 27일 '09년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
 "모든 일가들 화합하여 종사에 동참해 주기를...."



취임사를 하는 갑수 회장

설송(雪松) 韓甲洙 전 농림부장관은 지난 2월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앙종친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제23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갑수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미력한 저를 삼한갑족인 한문의 중앙종친회장으로 추대해 주신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재임 중 장학회관 건립 기금 조성과 시조묘성역회를 위한 역사관 건립 등 2대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모든 일가들이 화합하고 대동단결하여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임사

미력한 저를 삼한갑족 명문거족인 한문의 중앙종친회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韓甲洙 회장께서 워낙 많은 일을 하여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수회장의 많은 업적에 대해 감사하며 그 노고를 모두 기립박수로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관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종사(宗事)에 대해서는 생소한 면이 많은데다가 현재 종친회의 주어진 여건으로 보아 가시밭길을 걸지 않을 수 없으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임원님들과 모든 일가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현수 전 회장, 양명 전 회장과 의논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종친회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종사에 대해서 의견이 꼭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 가면서 풀어간다면 안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내부의 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화합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중앙종친회와 청한장학회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20억원의 장학기금을 50억원으로 늘려 장학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경제규모로 볼 때 50억원으로는 회관 건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대로 일차적으로 50억원 조성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사업과 함께 시조묘역을 성역화하는 사업이 제가 해야 할 2대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시는 임원 여러분과 100만의 모든 일가분들이 이 동참하고 협조하여 힘을 합쳐야만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묵은 문제점들은 상식에 기초해서 풀어내고 대동단결하고 화합을 하여 종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종친회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또 중앙종친회의 현안사업은 물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회장단, 임원, 고문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외의 많은 일가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 기회에 밝히고자 합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일가 여러분들께서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음악에 기초해서 풀어내고 대동단결하고 화합을 하여 종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甲洙회장 프로필>

전남 나주 출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 중동경제과정 수학, 명지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제10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10대 국회의원,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원장, 환경처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남북경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농림부장관,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현), 대한적십자사 경영협력화추진위원장(현), 21세기에너지연구회장(현)



갑수회장이 인계받은 중앙종친회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회원 차관, 남북경제공동위 남측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농림부장관,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한국산업경제연구원 회장(현), 대한적십자사 경영협력화추진위원장(현), 21세기에너지연구회장(현)

"정성 어린 현성(獻誠)에 감사 드립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현성금, 회비(임원), 장학기금, 종보(宗報) 구독료 등의 현성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손들을 위해 중앙종친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임원들의 회비와 100만 일가들의 현성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회비, 일가들의 현성금과 종보구독료의 현성이 활성화된다면 찬란한 청주한씨의 전통을 보존·발전시키고, 자손들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종친회의 여러 역할 사업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며, 한문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 현성

은 우리 청주한씨 명문을 이어갈 자손들의 장학사업에 지원될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명성을 남길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일가 여러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관 건립을 위해 장학기금을, 종친회의 활성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회비, 종보구독료를 현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재)청한장학회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현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한덕수 주미대사 축하모임

2월 16일 임명 · 3월초 부임



(앞줄 오른쪽부터) 갑수 전 중앙회장, 현수 전 총리, 덕수 전 총리, 명숙 전 총리, 승수 전 외무부장관, 양명 전 중앙회장
(뒷줄 오른쪽부터) 희천 삼재회장, 양수 전 충남지사, 화진 청와대 환경비서관, 영실 숙대총장, 춘식 예빈윤공파회장, 성설 중앙회부회장

전 국무총리 韓惠洙일가가 지난 2월16일 주미대사에 정식으로 임명되어 3월 초 위성던 현지로 부임했다. 덕수대사는 현지 부임에 앞서 지난 2월19일부터 방한한 크린턴 미 국무장관을 영접하고 각종 회의에 배석하는 등 주미대사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친회 玖洙 회장은 지난 2월3일 오후 6시30분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13명의 종친회 중진들을 초청, 덕수일가의 주미대사 내정을 축하하는 만찬모임을 베풀었으며, 모두들 덕담을 주고 있으며 덕수일가의 장도에 축복을 보냈다.

이날 모임에는 昇洙 총리(전 주미대사), 明淑 전 총리, 惠洙 주미대사(전 총리), 甲洙 전 농림부장관, 昇洲 전 외무부장관·주미대사, 陽洙 전 충남도지사, 榮實 속명여대 총장, 陽命 전 중앙회장, 玖洙 중앙회장, 春植 예빈윤공파 회장, 希天 삼재관리위원회 회장, 星燮 중앙회 부회장, 화진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 13명의 일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고 받은 덕담들은 다음과 같다.

玖洙 회장 인사말 : 덕수 전 총리의 주미대사 내정을 축하하기 위한 오늘 이 모임에는 공교롭게도 세분(승수, 명숙, 덕수)의 전·현직 총리와 세분(승수, 덕수, 승주)의 전·현직 주미대사가 자리를 함께 하여 아주 뜻 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숙총리를 시작으로 세분의

일가가 연속으로 총리직에 오른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우리 한문의 큰 영광입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덕수일가께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능력을 평가받아 다시 주미대사의 중책에 발탁되어 경사가 겹쳤습니다. 여성 일가들의 진출도 활발하여 지난 해 영실일가가 속명여대 총장에 취임한데 이어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화진일가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17일 회장단회의에서는 차기 중앙종친회장에 갑수 전 장관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2월27일의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昇洙 총리 : 종친회 기초를 잘 닦아주신 玖洙 회장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한 능력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청와대 환경비서관의 중책을 맡은 화진일가는 기후변화 분야의 권위자인데 참으로 좋은 분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속명여대 총장으로 있는 영실일가는 능력도 있고 학교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명숙총리와 겨루는 사이가 되면 큰 일인 데요 (일동 웃음). 작년 이맘 때 昇洲일가가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보 없이는 정치도 없습니다. 오늘 모임의 주인공인 덕수일가는 인맥, 인품 등을 볼 때 주미대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년 전에 주미대사를 했습니다만 나보다 더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가장 적임자를 뽑았는데 200만명이 넘는 재미교포사회에서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明淑 전 총리 : 작별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미국에 갈 일이 많은데 덕수일가가 주미대사로 가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2월22일 미국 가는데 만나게 되겠군요. 현수회장께서 종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아왔고 승수총리께서도 잘하고 계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甲洙 전 장관 : 대임을 맡고 주미대사로 가니 반갑습니다. 안보, 경제 등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승수총리가 오실줄은 몰랐는데 만나뵈니 반갑고 좋습니다. 숙대 총장 영실일가의 장래성을 확신하며, 현수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존경합니다.

惠洙 주미대사 : 오늘 이렇게 현수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일가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회장께서 5년 전에 나오라고 했는데 리더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다보스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 40명이나 참석했는데, '한국의 봄'을 열고 큰 역할을 한 승수총리가 자랑스럽습니다. 갑수장관께서 회장직을 훈쾌히 받아드리지 않고 계시는데 미국에 오시면 100마일 밖에서 주무십시오. (일동 웃음)

甲洙 전 장관 : 100마일 밖이면 어디쯤 됩니까? (일동 웃음)

惠洙 주미대사 : 아마 뉴욕쯤 될 겁니다. (일동 웃음)

양승 전 회장 : 갑수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수락하십시오.

昇洙 총리, 春植 예빈윤공파 회장, 甲洙 전 장관 : 각각 건배 제의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초창기와는 달리 수단 신청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 수단 신청을 하는 일가들에 대한 개통기간도 6개월 단위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5월31일까지의 수단 신청은 6월말에, 11월30일까지의 수단 신청은 12월 말에 개통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8천원입니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0,000원입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 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을 족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요령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2월15일 생, 1980년2월15일 졸.

(2) 학력 · 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 · 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편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生,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 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 사위의 생, 졸,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鶴),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장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를,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한씨는 기자(箕子)조선과 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왕비, 상신(相臣), 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100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종양회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의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주한씨는 100만명에 달하는 대성(大姓)인데 대동족보에 등재되어있는 일가는 불과 10만명 미만이니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일가들이 훌륭한 조상의 '뿌리를 모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손들에게 조상의 '뿌리를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그동안의 비애(悲哀)를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단(收單)과 함께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등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진들을 「인터넷족보」에 올리면 대대손손 자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상의 뿌리와 가정의 내력을 동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 '뿌리' 없는 자손이 되니 모두가 나서서 모르고 있는 일가들에게 알려주어 '뿌리를 찾아 '인터넷족보'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모두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없거나 몰라도 선조님의 험자(銘字 · 이름)만 알면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종친회가 일가들의 '뿌리를 찾아드리고 있으니 기회를 놓지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십시오.

〈연락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02) 720-6370~1, 9215(팩스 번호)

한현수 제22대 중앙회장 임기만료로 퇴임

"재임 10년여 동안의 협조에 깊이 감사" , "한갑수 중앙회장은 덕망이 높은 적임자"



심재(心齋) 韓涓洙 제22대 회장은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27일 퇴임했다. 현수회장은 지난 2006년2월28일 정기총회에서 21대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다시 경선 없이 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를 받아 연임된 바 있다.

현수회장은 지난 2월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앙종친회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퇴임사를 통해 "이번 22대 회장직을 포함하여 지난 10여년간의 중앙회장 재임 중 여러 임원님들과 100만 일가들이 베풀어준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하고 "재임 중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었던 다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으나 덕망이 높고 추진력이 있는 신임 갑수회장께서 결실을 맺어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퇴임사

3년간의 서울시 종친회장에 이어 중앙종친회장 12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종사를 수행하면서 여러 임원님들과 전국의 모든 일가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능력을 부족했지만 열심히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한갑족, 명문거족이라는 한문의 명예와 선조님들의 위업을 산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었던 다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임 甲洙회장께서 결실을 맺어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물러나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분 일가들이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으로 총리에 발탁되었고 또 지난 2월16일에는 漢洙 전 총리가 昇洙총리, 昇洲 전 외무부장관에 이어 한문에서 배출되는 세 번째 주미대사로 발탁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문거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승조돈종,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화합하여 갑수 신임회장의 종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안으로 추진 중인 장악회관 건립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사업과 역사관 건립으로 시조묘역을 성역화하는 2대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30~40억원이면 역사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대한 선조님들의 업적과 유적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사관 건립은 후손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서울시회장,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후세에 대한 교육 없이는 선조들이 이루어 한 위업들을 계승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문거족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념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기념비를 세우고,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지난 수년 동안 시행해왔던 시조묘역으로 들어가는 위양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를 2008년9월에 완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집념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갑수회장은 우리 종친회와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덕망이 높은 적임자 중의 적임자입니다. 꿈과 이상을 펼쳐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루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일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임 갑수회장을 정점으로 하나로 단합하여 새로운 종친회로 발전하므로 우리 한문의 명예를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차 강조한 바와 같이 한 차원 높은 종친회로 발전시키고 시대적인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도 구태의연하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불식하고 낡은 관행과 관습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종친회는 노인회와 같은 사랑방 종친회를 지양하고, 폐기와 활동력이 있는 50~60대 청장년층으로 조직을 보완, 개편해서 전국적으로 종친회를 활성화하고 역동적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년층은 2선으로 물러나 성원하고 격려를 해주는 원로로서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종친회에는 불행하게도 종재(宗財)가 없습니다. 정관에는 임원들의 회비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현성 실적이 저조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수회장은 고매한 인격에 덕망도 높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해 온 분으로 한국가스공사 사장 재임 시에는 CEO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큰 업적을 남긴 훌륭한 분이십니다. 임원들께서는 새로 취임한 갑수회장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종사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涓洙 전 회장 재임 중 업적

▶ 1987년 당시 한건수 중앙회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6교대동족보 편찬작업을 할 사무실이 없었던 중앙종친회에, 여의도 소재 신송빌딩 10층에 60평의 사무실을 자비로 임대하여 제공,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후 3년8개월간의 보증금, 월세금, 세금, 관리비 등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므로써 1924년 갑자보(甲子譜) 발간 아래 70년만에 6교대동족보를 완간, 반질하는데 기여했다.

▶ 1991년 고 눈피 韓甲洙 박사의 권유로 서울시종친회장으로 선임된 후 3년간에 걸쳐 서울시내 22개구에 종친회를 결성, 당시 거의 황무지였던 서울시종친회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 사무실을 자비로 마련했으며 상무, 총무, 경리 직원 등 모든 운영비와 22개구 종친회를 결성하는데 소요된 수억 원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1995년 제17대 중앙회장에 취임하자 모든 업무를 전산화 했으며 시조묘역에 2억원의 자비를 들여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①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과 부정 및 비리의 근원을 단절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전산화했다.

② 6월의 대홍수로 시조묘소 앞 축대가 붕괴된 사고를 계기로, 자비 2억원을 들여 60mm이던 하수관을 600mm 대형으로 교체했으며, 이기 시야 밭을 잔디밭으로 개량하고 낡은 재래식 회장실 건물을 철거, 수세식 회장실로 개축, 묘역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 1996년 6교대동족보에 누락된 일가들의 등재를 구제하기 위해 6교대동족보 중수보를 편찬하여 그 사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녀들의 결혼, 손자들의 출생 등 변동사항을 모두 등재하여 많은 일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중수보 발간사업으로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중앙회 재정에 기여했다.

▶ 1996년 청주한씨의 역사물로 유사보감을 3권 1질로 사진을 담아 알기 쉽게 발간하여 호응도 좋아 3억5,000만원의 외형에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6교대동족보 중수보 수익금 9,000만원, 96년도부터의 대동보 반질대금 1,000만원을 합쳐 1억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6교대동족보 반질 때 26억원의 외형이 발생되었음에도 한 푼의 수익금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큰 업적이다.

▶ 1997년 중앙종친회의 존립 여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전국에 산재한 일가들에게 계대를 찾아주기

위한 홍보를 위해 파격적으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조선일보에 "일가를 찾습니다"라는 제호로 5단통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 1998년 영상(映像)을 선호하는 젊은 후손들을 위해 청주한씨의 역사와 종친회의 각종 사업등을 영상물로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계대 표시는 물론 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유적유물, 시향을 봉행하는 장면, 현관과 제수 차림, 시향에 참사한 6,000명의 일가들이 시향을 봉행하는 장면 등을 담은 50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3개 상·중·하로 제작, 보급했다.

▶ 1997년 청한산악회를 조직, 12년간 매월 빠짐없이 4~50명의 일가들과 산행을 계속하면서 화합·돈목하고 건강과 호연지를 전자시키면서 상부상조하며 유대를 가졌다.

▶ 1999년 3억원으로 (재)청한장학회를 설립한 후 단위장학회 제도를 창출, 올 3월 현재 16개 단위장학회를 탄생케 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2005년 시향 때 시조묘역에 장학기금 20억원 달성 기념비를 건립했다.

▶ 2003년 종보 지면의 일부 커리화에 이어 2005년 종보 167호부터는 전면을 커리로 인쇄 시작.

▶ 2004년 제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국·한문으로 구축하여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뿌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조상의 유물, 가족들의 사진까지도 죽보에 수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도 개설, 문중의 소식을 접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모든 일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종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2007년 한명숙총리, 한영수의원, 한화갑의원 등 일가들의 도움을 받아 6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논밭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다녀야 했던 시조묘역 진입도로를 확장, 직선화하여 포장하고 "위양로"威襄路·威襄은 시조의 諡號 했으며 세일재 앞 광장도 확장,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대형주차장으로 변모시켰다.

2009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안내

※ 일 시 : 2009년 5월 9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시조부군 묘정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 참석범위 : 선발된 장학생 및 국내외 거주 청주한씨 전 종원

※ 식전행사 : 시조부군 양위 앞에 장학금 지급 고유제(告由祭)

※ 참고사항 : 장학증서 및 장학금은 반드시 장학생이 직접 참석, 수령해야 하며, 불참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02-720-6370~1 (중앙종친회)

2009년 3월 20일

(재)청한장학회 이사장 한현수
청한장학후원회 회장 한양명

약 도



"갑수회장 만장일치 추대만으로 이미 화합 성취" "덕망과 경륜으로 종친회의 위상 높여 주기를..." – 雪松 신임회장에게 바란다 –

지난 2월27일의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雪松 甲洙 중앙종친회장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그것은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춘 설송 회장께서 종친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명문거족 청주한문의 위상을 한단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중앙종친회에는 몇 가지 현안(懸案)들이 있다.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장학회관을 건립하는 일, 역사관을 건립하여 시조묘역을 성역화하는 일,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완결하는 일, 중앙종친회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일,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많은 과제들이 있다.

종친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시·도 회장들을 비롯 몇몇 원로, 중진들은 한결 같이 종친회의 '화합'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며, 그 밖의 여러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다음과 같은 글들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광역시·도 회장 전원에게 원고청탁을 했으나 원고를 보내오지 않은 회장들도 있어, 보내온 원고만 게재하였습니다.)

시조묘역에 남는 업적 영원히 빛날 것

是南陽命 전 중앙회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집요하게 청해보았다. 雪松 회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종친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두 갈래로 갈라진 종친회를 단일화해서 융화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송 회장이 나와서 양쪽의 손을 잡고 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설송 회장의 대답은 종사에 경험이 없고 伯氏(斗鉉회장)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하림각에서 있은 회장단회의에서 설송 회장을 중앙회장으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결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不諾이었다.

우리는 말형은 아버지에 준하는 가정의 어른이라는 옛 家規를 그대로 지켜 내려오는 근세에 보기 드문 훌륭한 한가족이다. <더욱이 80세 전후의 인행(雁行)들 사이에서 말이다> 우리는 다시 나주로 가서 백씨 斗鉉 회장을 뵙고 부탁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두현 회장의 전화내용은 "내 아우가 장관은 지냈으나宗事에는 경험이 없어 회장됨을 반대했으나 중증원로들의 추천이 이토록 자심하오니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서 수락하도록 상의해 보겠어"는 말씀이었고, 2월13일 설송 회장이 전화로 수락의사를 전해와 회장 추대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우리 한문의 중앙회장은 格晚, 圭復, 瑚錫, 熙錫, 陽命, 建洙, 瑣洙, 英洙, 甲洙 회장 등 모두 9분이다. 나는 이중에서 희석 회장의 청렴함과 갑수 회장의 또한 廉白함과 매사에 정확 치밀한 업무 처리방식을 가장 존경해 왔었다.

설송 회장은 수 많은 청활(淸活)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이미 거친 그 많은 공직은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모든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 반면 시조묘역에 남는 업적은 100년 200년 100만 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설송 회장은 훌륭한 업적을 남길 것으로 믿으며 우리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덕망과 경륜으로 화합 이루어 주십시오

牛園 春植 예빈윤공파 회장



雪松 甲洙 회장께서 삼한갑족, 명문거족인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의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문은 14세손부터 크게 번성하여 수 많은 학자, 문필가, 서예가는 물론 고관대작을 배출한 문중답게 역대 정권 때마다 4, 5명 이상의 일가들이 중용되어 한문을 빛냈으며, 또한 수 많은 출중한 기업인과 경영인 일가들이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설송께서도 그 중의 한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 문중에서 한 사람도 배출하기 어려운

국무총리를 연속으로 세분이나 배출한 것은 280여개 성씨 중 가장 뛰어난 문중이란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회장께서는 경제기획원 차관, 농림부장관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면서 많은 경륜을 쌓으셨습니다. 그 경륜으로 종친회가 화합하고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학회관 건립의 기틀 마련해 주십시오

希天 삼재관리위원회 회장



취임사에서 종친회의 화합을 특별히 강조한 신임 雪松 회장님에 대한 일가들의 기대는 큽니다. 지난 해 우리 종친회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화합을 강조한 회장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화목이 조직에서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가면서 풀어간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소신을 심문 발휘하여 종친회가 명실공히 화목한 일가들의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세대에 필수적인 '인터넷한글대동족보'가 일부 종파의 불참으로 반쪽자라가 된 채 구축사업이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의 확대 또

한 주요 현안입니다. 재임중에 우선 1차적인 목표인 50억원 모금을 달성하셔서 장학회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일가들도 회장을 도와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터넷한글대동족보 완결해 주십시오

相瑞 서울시종친회 회장



덕망과 경륜이 높은 雪松 회장께서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장으로 추대되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는 100만 일가들의 소망인 종친회 발전과 화합 목적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① 익산의 무강왕릉을 백제의 무왕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원화 작업을 추진중인 익산시의 망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우리의 가장 큰 덕목인 승조돈목의 실천으로 중앙종친회가 하나로 융화되고 화합하도록 해주십시오. ③ 중앙회에서 구축중인 인터넷한글대동족보에 등재를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종파들도 하루 빨리 합류하도록 하여 인터넷족보를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11세조 서재공(懇齋公·휘찬)의 후손이 제주에 2만여 명 거주하고 있는데 6교대 동보 편찬시 종파 대표 16명이 이들을 입보키로 결의한 바 있으니 이들의 입보문제를 매듭지어주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으로 중앙회 재정 마련하기를...

嬉燮 대구·경북 종친회장



덕망과 정·관계 경륜을 두루 갖춘 雪松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종친회가 시대흐름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화합, 단결을 통한 승조 애족 정신으로 가일층 도약하리라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견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회는 수익사업이나 기본재산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가들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와 연계하여 가입자에 따라 일정수익금을 배분받아 종친회 운영비에 충당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일가들에게도 양질의 상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종친회 주관하여 각 시·도와 문중종친회가 참여하여 많은 일가들이 가입토록 하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며, 각 시·도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조회사와 연대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주)삼성상조 회사가 좋은 사례입니다.

둘째, 중앙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2~3명씩 좋은 의견이나 정책적인 견의를 할 수 있는 '5분 발표회'를 가진다면 종친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추대만으로 이미 화합 성취

泳教 전북도 종친회장



먼저 우리 100만 일가들의 대표요, 지도자인 중앙종친회 회장으로 추대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흔히 민주사회 선거는 경선이 상식이라고 하지만 만장일치의 추대는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친회와 같은 비영리 친목단체에서의 경선은 화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님은 만장일치로 추대 받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화합을 이루셨습니다. 그기에서 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가 간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것을 회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 성씨인 우리 청주 한씨 100만 일가들은 일사불란하게 회장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큰 공적에 뜻지 않은 화합을 언제까지나 이루어주세요.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 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계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 한씨에 얹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들 중에서 종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계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보 편집실〉

'09년도 사업계획(안) · 채택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감사에 楸泰 · 東春 선출

감사와 임원선임은 신임회장에게 위임



2009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9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난해 보다 세입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 규모의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임원 선임에서는 楢泰(정해공파), 東春(문정공파) 일가를 감사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선임은 신임회장에게 일임했다.

▶ '09년도 사업계획(안) 7면

중앙종친회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 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퇴임하는 楢洙 직전 회장에게 공

수여(명단 별함)되었고 이어 현수회장의 인사말(퇴임사를 겸한)이 있은 다음 임원개선에서 제 23대 중앙회장에 갑수 전 농림부장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陽命상임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心齋 현수회장은 12년간 한문의 종친회장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노력한 끝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가장 큰 업적은 6억5,000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시조묘역 진입도로인 위양로를 개설하고 직선화한 사업과 청한장학회 장학기금을 현재의 20억원 규모로 조성한 공로"라고 치하하고 "퇴임 후에도 개인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 勝憲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현신적으로 종친회를 이끌어온 楢洙 회장에게 감사한다. 종친회 일은 힘이 들고, 회장직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을 해야하는 자리이므로 甲洙회장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우리 모두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心齋회장의 공덕과 종친회를 이끌어온 희생정신을 본 받아 화합해서 나간다면 한문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楢洙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

甲洙 신임 회장에게 추대패

榮實 숙대총장 등 일가 8명에게는 감사패

중앙종친회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 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퇴임하는 楢洙 직전 회장에게 공



국선 일가 (대리수여)

동석 일가

성교 일가

영실 일가

원교 일가

판덕 일가

'09년도 사업계획(안) · 예산(안) 채택

청한장학회 이사회, 올해 장학금은 9,500만원 지급키로

(재)청한장학회는 지난 1월 30일 상오 장학회 회의실에서 16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9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채택하는 한편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孝東, 泳教, 基虎, 判鉉, 章壎이사 등 5명의 이사를 연임기로 하고 熙燮(대구·경북) 일가를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된 奎喆이사는 퇴임했다.

이사회는 또한 2009년도 장학금 지급액을 9,500만원으로 확정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장학증서는 5월 9일(둘째주 토요일) 종전대로 시조묘역에서 수여하기로 했다.

▶ 장학금 수여식 안내 3면

**“음력 3월1일
삼재 시향에 많이 오십시오.”**
삼재 希天회장, 전국의 일가들에게 당부

추·모·봉(追續豆鳳) 삼재(三齋)관리 위원회 希天회장은 오는 음력 3월 1일(양력 3월 27일·금) 전남 영광 법성면 신장리 추원재(追遠齋)에서 봉행되는 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시향에 전국의 일가들이 가족동반으로 많이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삼재조(三齋祖)에 대한 시향은 음력 3월 1일의 6세조 예빈경부군에 이어 음력 3월 2일에는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의 모원재(慕遠齋)에서, 음력 3월 3일에는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봉강재(鳳崗齋)에서 잇달아 봉행된다.

「백졸재연보」번역본 발간 한문원본과 합친 최초의 자료

중앙종친회는 지난 2008년 12월 말 한문원본과 번역본을 합친 「백졸재연보(百拙齋年譜)」를 발간했다. 「백졸재」는 충정공(忠靖公·휘應寅)의 아호(雅號)로, 이 「백졸재연보」는 충정공의 일대기(一代記)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로 번역본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역사학자 永愚일가의 감수를 받아 출간된 「백졸재연보」는 한문원본(106쪽) 및 신도비명 원문(7쪽)을 합친 113쪽, 번역본(69쪽) 및 신도비 번역문(15쪽)을 합친 84쪽과 자료사진, 楢洙 중앙회장의 발간사, 永愚교수의 「백졸재연보」 해제 등을 합쳐 총 215쪽의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충정공(1544~1614, 명종9년~광해군6년)은 선조 10년(1577년) 암성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6조(曹)뿐인 이조, 병조, 호조, 예조, 공조, 형조의 판서(判書·오늘날의 장관에 해당)를 모두 역임하고 우의정에까지 오른 훌륭한 선조이다.

楢洙 중앙회장은 발간사에서 "역사적인 자료로 가치가 큰 충정공의 연보가 그의 사후 400년 가까이 사장되었다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완전한 번역본으로 세상에 내놓게 된 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조상들의 위대한 공적들을 발굴하여 고증을 거쳐 세상에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회비(1~2월)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양명 상임고문	1,500
양수 고문(서울 송파구)	500
상서 부회장(서울시 회장)	500
준석 부회장(전 동작구회장)	500
상원 부회장(전남 익산시)	500
상육 부회장(충남 회장)	500
광수 부회장(충무전당)	500
이택 부회장(둔간공파 회장)	500
근수 부회장(동계공파 회장)	500
영교 부회장(전북도 회장)	5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
희경 부회장(여성전당)	500
동익 부회장(문정공파 회장)	500
상홍 부회장(서울 종량구)	500
춘식 부회장(예빈윤공파 회장)	500
성룡 부회장(조직 전당)	5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200
효균 지문위원(울산 남구)	200
대현 지문위원(경기 의정부시)	200
천희 감사(중앙회 감사)	200
태진 운영위원(구미시회장)	200
상운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200
기태 운영위원(경기 파주시)	200
기연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200
상필 운영위원(충남 청양군)	200
영식 이사(서울 서초구)	200
남교 이사(서울 동대문구) 08, 09년도분	200
성억 이사(노림익상종종회장)	200
성순 고문(경기 성남시)	100
상하 운영위원(경양군회장)	100
영석 운영위원(충남 흥성군)	100
병윤 이사(충남 태안군)	100
전 이사(인천 부평구)	100
기성 이사(서울 종로구)	100
경례 이사(서울 관악구)	100
기용 이사(이양공파회장)	100
유광 이사(경기 담양주시)	100
철우 이사(경기 포천시)	100
태희 이사(전북 완주군)	100
합 계	16,370

개인종보비(1~2월)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종의공파종중 대희 외 18명	380	철수 이사(서울 관악구)	20	성우(서울 서초구)	2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	공수(충남 청양군)	20	순(서울 성동구)	20
호석(대전 서구)	100	관영(서울 강남구)	20	승구(광주 서구)	20
계봉(경기 시흥시)	50	광수(경기 성남시)	20	양섭(전남 화순군)	20
규협(대전 중구)	50	광수(서울 마포구)	20	옹석(경기 광명시)	20
기편(서울 성동구)	50	광우(대전 서구)	20	운석(충남 서천군)	20
만택(서울 강남구)	50	광호(서울 은평구)	20	원훈(서울 광진구)	20
석용(강원 춘천시)	50	광희(경기 의정부시)	20	유섭(경기 여주군)	20
영전(대전 중구)	50	광희(서울 중랑구)	20	재근(전북 전주시)	20
안규(부산 부산진구)	50	규평(광주 서구)	20	재석(경남 함양군)	20
철우 이사(경기 포천시)	40	근영(전남 여수시)	20	재영(대구 수성구)	20
광호(서울 영등포구)	30	기대(경기 이천시)	20	정기(서울 서초구)	20
기성(경기 군포시)	30	기삼(광주 서구)	20	정동(경북 구미시)	20
동희(경기 구리시)	30	대섭(경기 고양시)	20	정수(광주 북구)	20
병희(충남 부여군)	30	돈희(서울 서초구)	20	정수(서울 광진구)	20
상우(경북 영천시)	30	동석(서울 광진구)	20	종대(경기 하남시)	20
상원(서울 노원구)	30	두만(경북 안동시)	20	종학(서울 강동구)	20
석구(경남 밀양시)	30	래봉(서울 도봉구)	20	중섭(서울 동작구)	20
석홍(경북 칠곡군)	30	무진(경기 고양시)	20	천희(서울 노원구)	20
성태(충북 증평군)	30	민희(경기 수원시)	20	창근(경기 의정부시)	20
영일(강원 평창군)	30	병숙(서울 관악구)	20	철수(경기 시흥시)	20
영희(전북 장수군)	30	병희(서울 관악구)	20	쾌섭(경남 진주시)	20
용수(경북 영천시)	30	상기(경기 괴천시)	20	태복(충북 옥천군)	20
준희(서울 서초구)	30	상동(서울 금천구)	20	태석(서울 동작구)	20
진택(서울 광진구)	30	상민(서울 성동구)	20	호철(서울 도봉구)	20
춘부(서울 중구)	30	상태(서울 은평구)	20	수연(서울 도봉구)	10
평전(경기 수원시)	30	석정(경남 김해시)	20	양수(서울 성북구)	10
광수 부회장(충무전당)	20	석홍(서울 은평구)	20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경례 이사(서울 관악구)	20	성두(울산 북구)	20	재규(서울 용산구)	10
봉수 이사(충남 청양군)	20	성식(경북 경산시)	20	택용(서울 노원구)	10
상필 이사(경기 하남시)	20	성우(경기 진주시)	20	태수(서울 관악구)	1
합 계	2,701				

종보비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한분의 소식지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들의 자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될 귀중하고도 유일한 매체(媒體)입니다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종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종보'는 받아보시면서 종보비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종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금하려면 번거로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구 종친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모아서 단체로 보내면 편리할 것입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가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보'는 흘로 서로 싶어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좌번호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보' 발행인 한갑수(중앙종친회장)

단체종보비(1~2월)

단위 : 천원	
대구경북종친회(희섭)	300
전북도종친회(영교)	300
전주시종친회(기수)	300
공주시종친회(도현)	230
강북도봉종친회	200
고성군종친회	200
진주시종친회(기영)	200
고창군종친회	100
남원시종친회	50
동원(경기 안산시)	50
합 계	1,930

장학기금납부 내역(1~2월)

고유번호	이 름	금 액(1~2월)	누계
1769	동관(원광 강릉시)	2,000	3,000
1788	현백(서울 노원구)	1,000	1,080
980	성교(대전 중구)	200	1,050
258	철수(서울 관악구)	50	800
1762	영도(경기 성남시)	50	600
821	성순(경기 성남시)	100	550
460	종대(경기 하남시)	50	500
1576	성두(울산 북구)	100	50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30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	210
474	태수(서울 관악구)	1	173
453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140
1676	철수(경기 시흥시)	20	130
1900	미래(광주 동구)	110	110
1733	정기(서울 서초구)	20	60
1899	상후(충남 천안시)	20	20
합계	3,791		

재춘청장년회장에 창석일가

재춘(在春) 청주한씨 정장년회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 춘천시내 산토리니에서 많은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석 신암회장(6대)과 만우 전임회장(5대)의 이

• 취임식을 거행했다. 1992년 70여명의 청장년들로 창립된 재춘청장년회는 대내적인 화합과 함께 대외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는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모범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창석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참여"라고 강조했으며, 만우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회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영철, 기홍, 희민 사무국장=병천 총무=준수 감사=재영, 진희

중앙회 내방 일가

- 晚熙 서울 금천구
- 上亨 서울 종로구
- 敏熙 경기 수원시
- 우식 경남 함양군
- 상오 경기 용인시
- 동규 경기 고양시
- 尚憲 서울 서대문
- 利澤 경기 용인시
- 상준 경기 하남시
- 昌山 경기 용인시
- 대식 경기 파주시
- 東春 경기 의정부

2009년도 사업계획

1. 시조 태위 위양공 부군 및 4위 부군 기축년(己丑年) 시향 봉행

●시향

- 일시 : 2009년 11월 17일 (음 10월 1일)
- 참사대상 : 전국 종원
- 묘제 홀기 제수준비와 제관 분방

●부대행사 : 표창폐 수여

- 효자, 효녀, 효부상

2. 시조묘역 문화재 지정 추진

●묘역 성역화 정지작업

●역사관 건립

- 선대에 대한 역사적 인 고증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

- 시조묘역 주위 위토사용자 16세대 소개 (疏開)

3. 시조묘역 관리

●시조묘역 잔디 및 수목 관리

●연중 잡초 제거

●위양로 및 주차장 관리 철저

4. 무강왕릉 보존

●왕릉, 왕비릉 잔디 가꾸기 계속

5.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책 편집 발간

- 2004년부터 수단접수를 진행해 오던 중 일가들 다수가 대동보 발간을 제안하고 있다.

6. 장학회관 건립

- 각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및 문중을 통해 장학회관 건립을 위한 장학기금 55억원 조성

목표를 권장한다.

- 각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지파 문중 회장단회의 개최

– 중견기업인 및 독지일가 모임 추진

- 300만원 이상 출연일가에 장학생 추천권 부여

- 1,000만원 이상 조성한 해당 광역시 · 도, 시 · 군 · 구에 추천권 부여

- 10억원 이상 출연일가에게는 흥상 전립

7. 청장년회 활성화 추진

●전국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종친회에 반드시 청장년회를 조직한다.

- 청장년회는 중견경제인, 중견직장인 계층으로 종친회를 계승할 세대임

– 고령화 추세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청장년회 조직의 활성화는 종친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8. 세일재 개 · 보수

●세일재가 1982년에 중진 이래 장기간 보수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기둥이 부식 하는 등 조속한 개 · 보수가 필요함.

9. 화장실 증설 및 보수

●시향에 참사하는 일가들의 증가에 비해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특히 부녀자들의 참사가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함.

- 일부 간이화장실을 사용중에 있으나 화장실이 증설되면 철거할 예정임.

10. 장학금 지급

●제9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

- 일시 : 2009년 5월 9일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시조묘역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 지급금액 : 9,500만원

- 고유제 봉행

- 청주한씨의 유래 등 설명회

대구 · 경북종친회신년교례회 화합, 단합, 친목, 기여, 동참 다짐

청주한씨 대구경북종친회 신년

2009.1.31 문화웨딩



신년사를 하는 회섭 회장

대구 · 경북종친회(회장 烇燮)는 지난 1월31일 대구시내 문화웨딩 5층 연회장에서 100여명의 임원 및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갖고 대구 ·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6만명 일가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새해에는 회합과 단합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종친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와 동참을 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중앙회에서 瑪洙 회장과 星燮부회장, 경북지역종친회에서 상주시, 구미시, 영천시, 포항시의 종친회장들, 경북도의원 혜련일가, 경산시의원 태락일가, 칠곡군의원 향숙일가, 경일대 교수 상인일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2008년도에 큰 상을 받아 종친회를 빛낸 일가들도 소개되었다. 대구일보 사장 국선일가(문화상, 대통령상) 경상종합건설(주) 대곤일가(중소기업 경영대상) 삼한CI(주)대표 삼화일가(세계일류 기업 경영대상, 신지식인상 등 다수) 청송군수 동수일가(민선4기 청송군수 취임).

한정규일가 한맥문학상 수상



시조하 29세인 韓貞圭일가는 지난 2월12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국제펜클럽이사장 등 문학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관 세종홀에서 열린 월간 한문학 창간 20주년 기념 한맥문학상 시상식에서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는 수필집으로 수필부문 문학상을 수상했다.

정규일가는 지난 2002년말 환경부에서 공직을 끝낸 후 뒤늦게 글을 쓰기 시작하여 수필 「부럽다 그 사람들이」, 소설 「깻김굿」으로 한국문단에 등단, 2007년말에 수필집 「선택과 운명」, 2009년2월에 두 번째 수필집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를 펴냈으며, 오는 4월말 출판예정으로 소설집 「너 결혼 안하니」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맥문학기협회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군산시 정기 임원회 및 정기총회 종보비 빠짐없이 납부키로 결의

군산시종친회(회장 澤洙)는 지난 2월24일 오후 1시 시내 엄마식당(구 양지회관)에서 정기 임원회 및 총회를 열고 2008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채택하는 한편 단체 종보비 및 개인 종보비를 지체없이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약 1,000세대가 살고 있는 군산시의 종친회 임원들과 일가들은 장학회관 건립기금과 10세 서원군(회 方信) 사당 건립성금 등의 출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면 이날 총회에서도 군산대학교 전 총장 연종일가께서 10만원, 천수이사와 창술이사가 각각 5만원씩, 백수회장이 20만원을 현성했으며 대야농협 상무이사인 전수일가는 매월 봉급 때마다 1만원씩 자동이 체방식으로 현성하는 등 군산시종친회의 기금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주종친회장에 기섭일가 선출 정기총회에서, 총무에는 기호일가



충주시종친회는 지난 3월8일 충주시 연수동 소재 상록뷔페에서 1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8대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9대회장에 기섭(32세)일가를 만

장일치로 선출하고, 부회장에 갑동(32세), 재희(33세), 용환(32세), 정상(32세), 광진(31세), 상구(32세), 영수(31세), 상인(31세), 기영(31세), 영희(33세), 용식(32세) 일가 등 11명을 선임했다.

한편 회장을 맡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상우(31세), 준석(31세), 정우(30세), 용식(32세)일가 등 전임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총무에는 기호(31세), 감사에는 상복(32세), 상영(31세)일가 등 2명을 선출했다.

용식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재임중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일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충주종친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섭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련이나마 수년간의 총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가들간의 돈독한 친목과 충주종친회 발전에 혼신할 것이며, 특히 중앙종친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시 영도구회장에 명호일가

부회장 상원 · 정심 , 총무 동철일가

부산시 영도구종친회는 지난 해 12월20일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명호일가를, 부회장에 상원, 정심일가 2명을, 총무에 동철일가를 각각 선임했다. 총무 연락처 : 010-9612-1245, 051-416-6900, 영도구 신선동1가 217-1 5/1.

한원교일가, 사진작가전 20걸 뽑혀

사진작가 한원교일가는 지난 2월28일 (사)한국 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제46회 회원전에 작품 '갈매기여로'를 출품, 20걸(傑) 작품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한기훈일가 KAIST에서 박사학위



한기훈(34세손 · 안양 공파)일가는 지난 2월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 · 박사 통합과정 생명 과학과를 졸업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훈 일가는 한성과학고교를 2년 수료하고 KAIST에 입학하여 학사 수석졸업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일가이다. 기훈일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준희일가의 아들이다.

청한산악회, 마니산으로, 백운산으로



지난 1월에는 평소보다 적은 26명의 회원이 수려한 백운계곡으로 유명한 포천지역의 백운산(904m)에, 이어 2월에는 44명(강화종친회에서 3명)의 회원이 강화의 마니산(469m)에 올랐다.

마니산은 단군이 천재를 올렸던 유명한 곳으로, 매년 전국체전의 성화가 채화되는 민족의 영산 중 한곳이다. 능선이 대부분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을 오르내리는 재미가 특별하고, 참성단에 오르고 나면 밭이태로

께 산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철에 따라 억새와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서쪽 능선에서는 멀리 임진강과 북녘땅을 볼 수 있고, 정상 서쪽 기슭에는 신라 선덕여왕 8년에 창건했다는 정수사와 합허대사가 수도했다는 합허동천이 자리 잡고 있는 마니산은 서울에서 지척에 있으면서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서 유적답사를 겸한 산행지로 최적이라 불리는 곳이다. 절은 인개로 아름다운 조망의 감상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봄을 맞아 이곳을 찾은 많은 등산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며 약 3시간의 산행을 마무리 했다. 산행을 마치고 온천욕을 다녀온 일부회원과 함께 강화 종친회에서 안내해준 식당에서 베스찌개로 식사를 한 후 돌아오는 길에는 수갑일가의 조예 깊은 해설을 걸들여 역사 깊은 사찰 전등지를 둘러보았다. (중앙회 상무 鍾二)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시원함과 조망되는 전경으로 인해 "산행의 참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탄과 함

장학회관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장학기금 출연하여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남겨 주십시오.
삼한갑족 · 명문거족의 영예는 장학사업만이 유지해 줍니다.



아래를 둘러 우한 이미지므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학회관 건립 출연금 약정제도 취지문

1. 이 나라 장래를 짚어질 동량(棟梁)의 거재(巨材)를 우리 한문에서 배출하기 위해 청한장학회 창립 6년만에 많은 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2. 우리 청주한문은 장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후손들이 높은 학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선조들의 위업과 전통을 연연히 이어받아 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한문을 빛내고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3. 금융저축에 의한 이자수입이 부동산 임대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장학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동일한 액수의 기금으로 장학회관을 건립한다면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의 몇배가 된다. 취득세·소득세 등도 면제되므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4. 장학회관 건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출연금 약정제'를 도입. 약정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상한 종원에 대해서는 회원증 발급, 고유번호 부여 등과 함께 기념비와 장학회관에도 출연액수에 따라 명세록 또는 동판 명세록에 성함을 각인하여 그 공적을 영구히 후세에 대대로 전하고자 한다.

■장학회관 모금 목표 및 방향

▶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 회관건립 소요액 총 55억원

▶ 장학회관 건립 모금방향

- 직접납부 또는 약정(3년 분할납부 가능)
- 3천만원부터 단위장학회 설립
- 기부, 증여, 유증에 의한 출연 환영(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장학기금 및 단위장학회 설립 내용

- 은행금리 이상의 이자 지급 - 개별장학금으로 관리
- 출연자가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증서도 직접 수여
- 해외 거주 일가 출연 환영

■모금참여방법

기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한문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 약정방법

- 전화접수 : 02-720-6370~1 - 방문접수 : (재)청한장학회 및 중앙종친회 사무실(동일)
- Fax접수(소정양식) : 02-720-9215 - 온라인접수(소정양식) : www.chongjuhan.net

▶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09-25-0015-377 예금주 : (재)청한장학회 - 지로 : 회보

■장학회관 건립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 100만원 이상 : 장학회관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 ▶ 1,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 ▶ 3,000만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식당, 회의실 이용시 할인
3. 단위장학회 설립
- ▶ 1억 원 이상 : 1.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2.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3. 단위장학회 설립
- ▶ 5억 원 이상 : 1. 총별 동판 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총을 출연자의 총으로
2.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3.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4. 단위장학회 설립
- ▶ 10억 원 이상 : 1. 회관내 '명예의 전당'에 흉상을 세우고 이력사항을 기록하여
후손들의 사표(師表)로 영구히 보존
2. 총별 동판부조(본인) 설치 및 해당총을 출연자의 총으로
3. 명예의 전당 동판 명세록에 출연자 성명 각인 및 사진전시
4. 장학회관 연회실 및 회의실, 예식홀 대관 무료
5. 단위장학회 설립

■장학기금 출연시 세제혜택

▶ 개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의거 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공제혜택

▶ 법인소득으로 출연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 범위내 공제혜택 ·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



2005년도 장학기금 20억 달성 기념비 제막광경

■건축개요

알찬 사업준비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 실패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 –
든든한 바위 같고, 편안한 고향 같은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웨딩홀, 회의실, 만남의 장소, 전시장 등

- 대지위치 : 교통이 원활한 신도시 지역
- 건축면적 : 331평방미터(100평)
- 주요구조 : 철근 / 철근콘크리트조
- 연면적 : 3,306평방미터(1,000평)
- 건축구조 : 지상 10층, 지하 3층
- 주차대수 : 30대

▶ 일반시설(계획)

- 회원교류시설 : 만남의 장소, 명예의 전당, 재단사무실
- 회의실 : 각종 모임 및 회의장소
- 암대시설 : 은행, 전시장, 비즈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업무용사무실 등
- 수익시설 : 웨딩홀, 연회실 등

■운영개요

여러분이 출연하는 건립기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연구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 장학회관의 역할

- 한문의 궁지와 위상에 걸맞는 만남의 장
- 세계속의 한문으로 한문을 발전시키는 지원센터 기능
- 청한장학회의 장학생들이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 장학회관의 기대효과

- 장학회관 완공시 매년 수억원의 순수익 예상
- 수익금은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과 한문발전을 위한 역사연구비 지원 및 문화사업비 등으로 전액 사용

■모금개요

장학회관 건립 모금목표 55억원

100만 국내외 일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적극 동참합시다.

- 종보 빌승시 동봉된 무정액 지로 이용
- 신용카드 : 홈페이지를 통한 납입
- 자동이체(CMS) : 인터넷뱅킹 거래은행에 의뢰
- 직접방문 : (재)청한장학회 사무실 방문 납입(주식, 부동산 등)